



*사진 출처 : AI생성 이미지

numbers

vol. 354 | 2026.10.20.

한국교회 주요 지표 변화

예배 회복률은 80~90%대,
아직 코로나 이전 회복 못해!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장기기증 실태
2. 채식주의 관련 인식

넘버즈 칼럼

노년의 성장이 전 교회를 이롭게 하는 목회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통계

예배 회복률은 80~90%대, 아직 코로나 이전 회복 못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일 현장예배 참석률, 사역 회복도, 성도들의 신앙생활 변화 등 한국교회의 주요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 <넘버즈 354호>에서는 2026년 6월 실시한 동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현주소와 향후 목회적 과제를 살펴본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코로나 시기인 2019년 기독교 인구 비율은 17%였는데, 2025년은 18%로 소폭 오른 반면, 현장 예배 참석률(코로나 이전 대비 성인 예배 94%, 교회학교 81%)은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점이다. 이는 과거 ‘기독교인=교회출석자’ 등식이 이제는 ‘기독교인≠교회출석자’ 즉, 기독교인과 교회출석자가 분리되는 현상인 ‘크리스천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기독교인 조사>

2022.04.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2022.05.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197명, 온라인 조사, 2022.04.15.~04.25.)

2024.06.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인 신앙의식 조사’, 2024.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2025.05.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2026.06.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7, 2026.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6.02.~06.15.)

<목회자 조사>

2023.05.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31.)

2024.01.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5.)

2024.06. :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 목회실태 조사’, 2024.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7.~06.03.)

2025.05.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5.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5.05.23.~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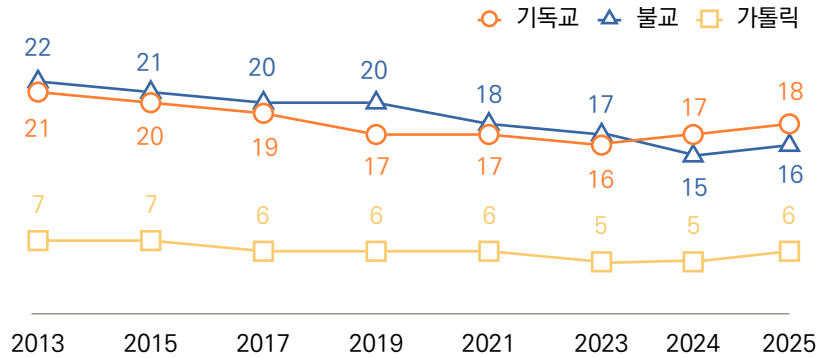
2026.06.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7, 2026.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6.06.04.~06.22.)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인구 비율 18%, 감소세 멈추고 반등!

- 기독교 인구 비율은 2013년 21%에서 2023년 16%로 장기적으로 하락 양상을 보여왔으나, 이후 2024년 17%, 2025년 18%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그림] 종교별 비율 추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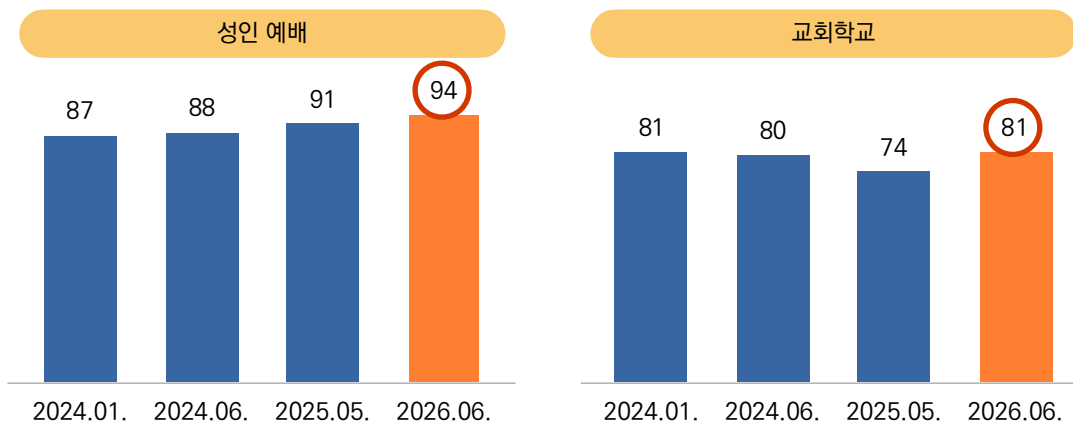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1) 종교 현황, 2026.03.2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628>)

예배 회복률은 80~90%대, 아직 코로나 이전 회복 못해!

- 성인 예배 참석률이 2026년 6월 94%, 교회학교는 같은 기간 81% 수준이었는데, 이는 앞서 전체 기독교 인구 비율이 코로나 대비 소폭 높아진 것(2019년 17% → 2025년 18%)과는 대조적이다. 여전히 교회 안 예배 참여율은 코로나 전 대비 80~9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 이는 과거 '기독교인=교회출석자' 등식이 이제는 '기독교인≠교회출석자' 즉, 기독교인과 교회출석자가 분리되는 현상인 크리스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참석률 (담임목사, 각각 N=500,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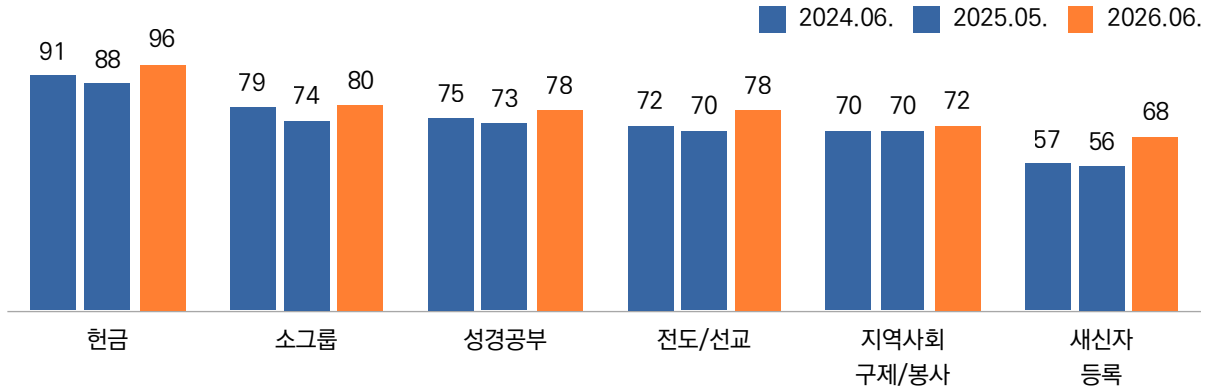


*'Decoupling'은 원래 서로 결합되어 있던 두 요소가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함. 경제에서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분리를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기존에 함께 묶여 있던 기능이나 시스템이 서로 독립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됨.

교회 주요 사역 회복세, 80% 밑으로 출석교인 회복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

- 헌금(96%), 소그룹(80%), 전도/선교(78%) 등 교회 주요 사역은 아직까지 80% 밑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의 출석교인 회복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 새신자 등록은 2025년 56%에서 2026년 68%로 12%p 상승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역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쳐 코로나 이후 새신자 유입/정착에 있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 사역 회복률 (담임목사, 각각 N=500,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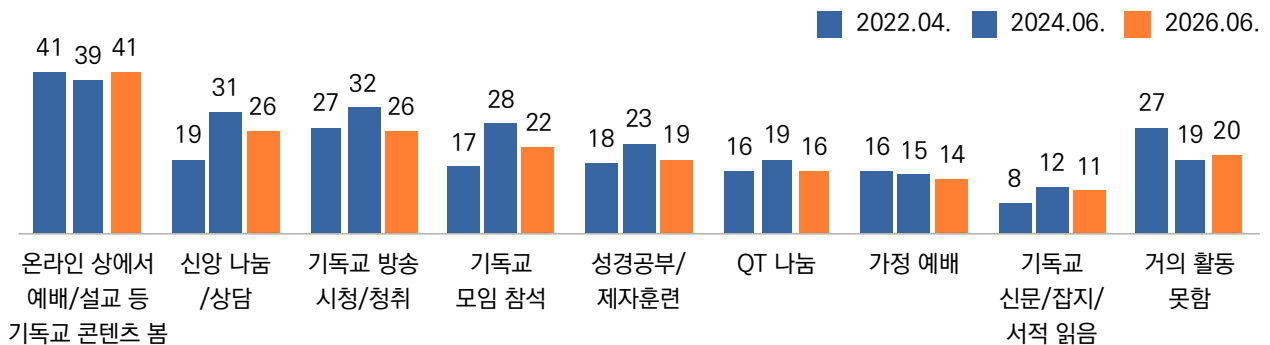
02

[성도들의 신앙 생활 변화]

신앙 모임·나눔은 줄고,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은 여전히 견고!

-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 단계(2024년)에서 반등했던 대면 신앙 활동(신앙 나눔/모임, 성경공부 등)은 2026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가 2024년 32%에서 2026년 26%로 하락한 반면,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은 41%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성도들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설교나 찬양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는 신앙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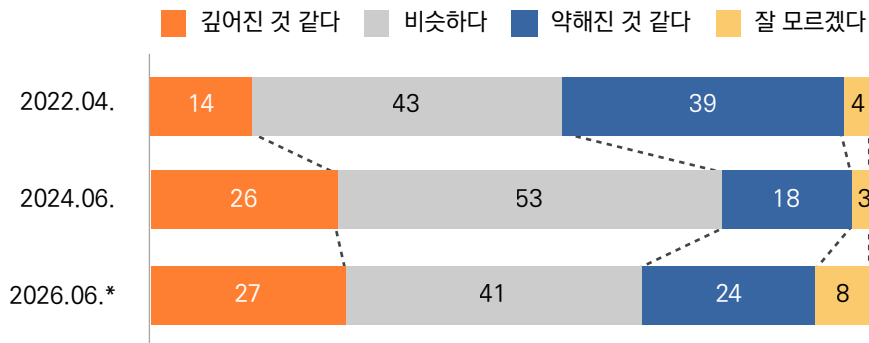
[그림] 지난 1주일간 신앙 활동 (교회 출석 기독교인, 중복응답, 각각 N=1000. %)



코로나 이후 신앙 양극화 심화!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신앙 수준 변화를 보면, '비슷하다'는 인식은 2024년 53%에서 2026년 41%로 크게 줄어 들었다.
- 반면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은 27%로 유지됐고,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서 24%로 약간 증가 했다.
- 전반적으로 신앙수준 유지층은 줄고, 양극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수준 변화 (교회 출석 기독교인, 각각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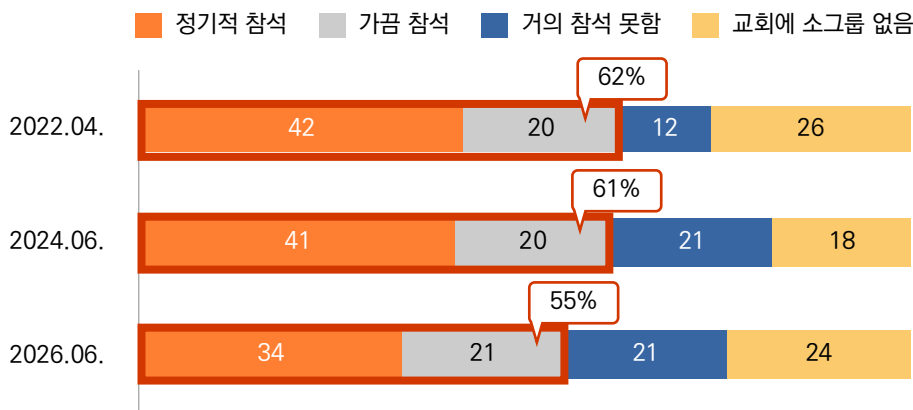


*5년 전(코로나 이전) 신앙생활 안 했다(2.7%)를 제외한 나머지를 100%로 환산함.

신앙 소그룹 정기 참석률, 4년 새 7%p 하락!

- 교회 출석자들의 소그룹 참여율은 2026년 55%로 절반 남짓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다만 '정기적 참석' 비율은 2022년 42%에서 2026년 34%로 꾸준히 낮아져, 성도들의 소그룹 참여 동력이 점차 약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신앙 소그룹 참석 여부* (교회출석 기독교인, 각각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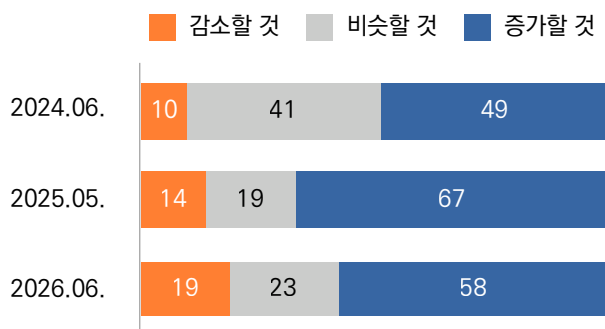


*신앙 소그룹은 구역, 속회, 셀 등 신앙 중심의 전통적인 소그룹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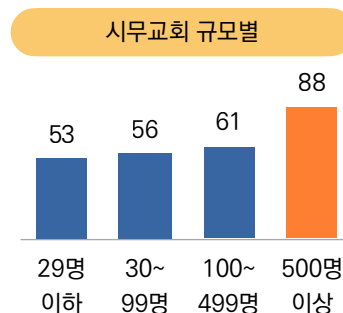
향후 교인 수 '증가' 전망 58%, 전년 대비 9%p 하락!

- 향후 교인 수 추이에 대해 담임목사의 과반(58%)이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그 비율은 2025년(67%)에 비해 9%p 하락했다.
- 특히 교인 수 증가 전망은 교회 규모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출석 교인 500명 이상' 대형교회 목회자의 88%가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53%에 그쳤다. 교회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향후 더욱 가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향후 교인 수 예상 (담임목사, 각각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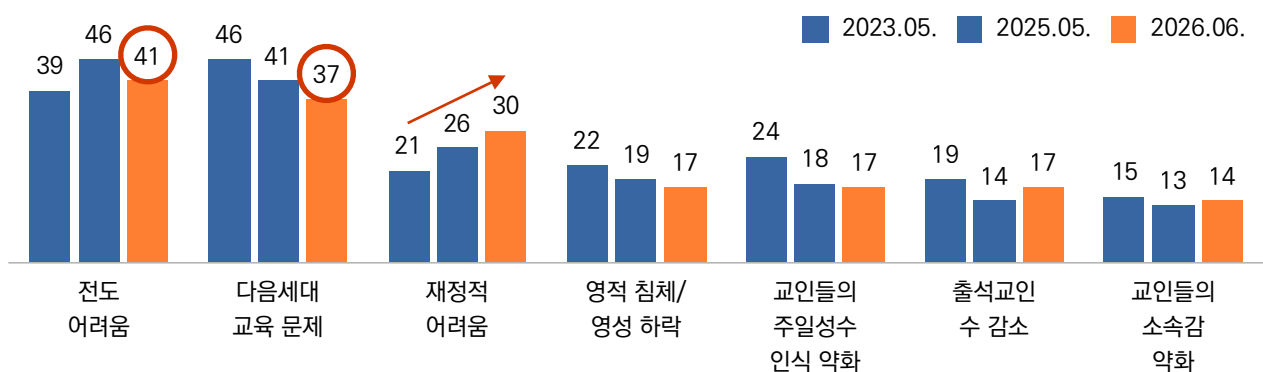
[그림] 향후 교인 수 '증가' 예상 비율 (2026, 담임목사, N=500, %)



최대 과제는 '전도',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 가중!

-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전도 어려움'(41%)과 '다음세대 교육 문제'(37%)가 여전히 최상위를 차지했다. 다만 두 항목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 반면 '재정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은 2023년 21%, 2025년 26%, 2026년 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회가 체감하는 재정적 부담과 실질적 압박이 해마다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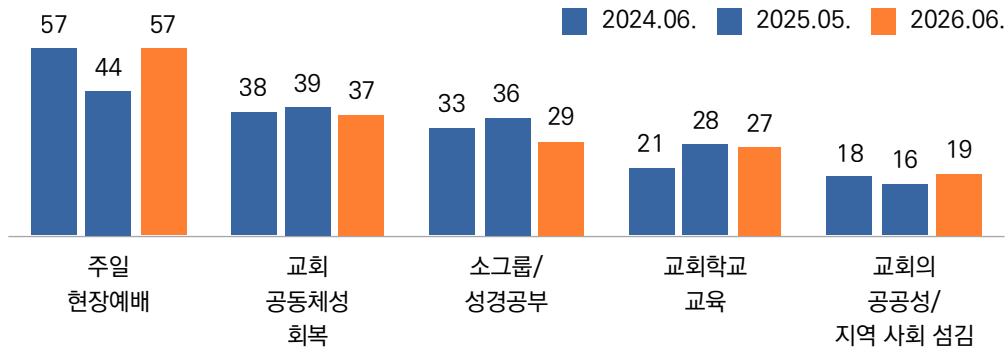
[그림]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 (담임목사, 각각 N=500, 1+2순위, 상위 7개, %)



향후 목회 중점, '주일 현장예배' 강화 다시 1순위로!

- 담임목사가 생각하는 향후 목회 중점 사항은 무엇일까? '주일 현장예배'에 중점을 두겠다는 응답이 57%로 1위를 차지했다.
- 한편 지난 조사(2025년)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소그룹/성경공부'는 2025년 36%에서 2026년 29%로 7%p 하락하며 대면 신앙 활동 및 소그룹에 대한 목회적 집중도가 다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향후 목회 중점 (담임목사, 각각 N=500, 1+2순위, 상위 5개, %)



이번호 요약

1. 예배 회복률은 80~90%대, 아직 코로나 이전 회복 못해!

전체 기독교인 비율이 코로나 때 대비 소폭 높아진 것(2019년 17% → 2025년 18%)과는 대조적으로 성인 예배 참석률은 2026년 94%, 교회학교는 같은 기간 81% 수준에 그쳤다.

2. 신앙 모임·나눔은 줄고,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은 여전히 견고!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 단계(2024년)에서 반등했던 대면 신앙 활동(신앙 나눔/모임, 성경공부 등)은 2026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은 41%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성도들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설교나 찬양 등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는 신앙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향후 목회 중점, '주일 현장예배' 강화 다시 1순위!

담임목사가 생각하는 향후 목회 중점 사항은 '주일 현장예배'에 중점을 두겠다는 응답이 57%로 1위를 차지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지용근 외, 규장)

관련 성경 구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기독교 인구의 외형적 감소세를 저지했음에도, 성도들의 실제적인 현장 예배 출석과 소그룹 결속력은 약화되는 내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자율적 신앙 활동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목회 현장은 단순한 현장 출석 독려를 넘어 대면 예배와 소그룹이 주는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주일 현장예배'의 영적 역동성 회복이다. 목회 중점 1위로 올라선 '현장예배 강화'는 단순한 숫자 회복이 아닌, 모이는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임재와 공동체적 고백을 선물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소그룹의 체질 개선이다. 정기적 참석률 하락(2022년 42% → 2026년 34%)을 타개하기 위해 성도들의 달라진 라이프스타일과 자율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친밀한 신앙 모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다음세대 예배'에 대한 사역적 집중이다. 성인 예배(94%) 대비 교회학교(81%)의 회복 지체는 미래 교회의 근간을 위협하므로, 교회의 재정과 역량을 다음세대 세우기에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결단이 시급하다.

1. 장기기증 실태



2. 채식주의의 관련 인식



[넘버즈 칼럼]
노년의 성장이 전 교회를 이롭게 하는 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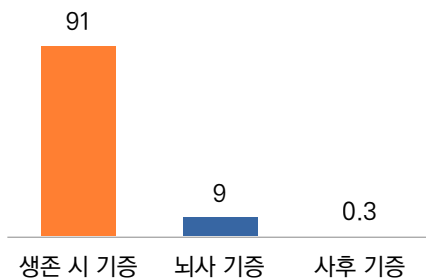


[장기기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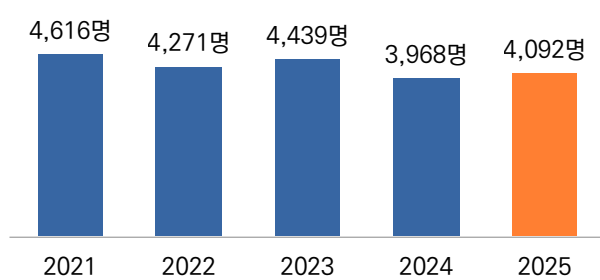
장기기증자 10명 중 9명(91%), '생존 시' 기증!

- 흔히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뇌사 상태나 사후에 기증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국내 장기기증의 대다수는 '생존 시 기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기기증 유형 중 '생존 시 기증'이 9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뇌사 기증'은 9%, '사후 기증'은 0.3%에 불과했다.
- 한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장기기증자 수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21년 4,616명에서 2024년 3,968명까지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4,092명으로 전년 대비 약 3% 반등했다.

[그림] 장기기증 유형 (2025, 장기기증시점 기준, %)



[그림] 장기기증자 수* 추이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5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 202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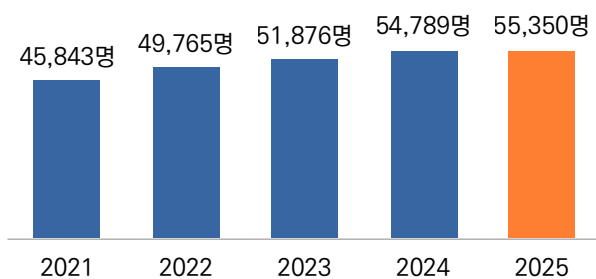
*장기기증자는 뇌사 기증, 사후 기증, 생존 기증(조혈모세포 기증)을 포함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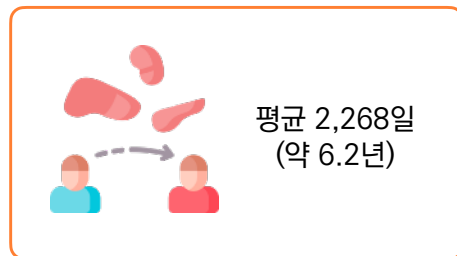
장기이식 대기자 평균 6년 기다린다!

- 장기기증자 수는 최근 5년간 4,000명 안팎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25년 55,3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기증(공급)과 이식 대기(수요) 간의 극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환자들의 기다림도 길어지고 있다.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268일(약 6.2년)로 나타나,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림] 장기이식 대기자(수요자) 추이



[그림]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5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 202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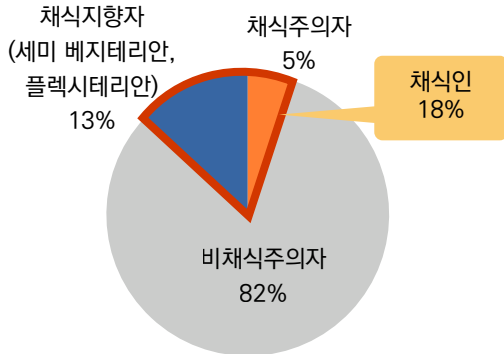


[채식주의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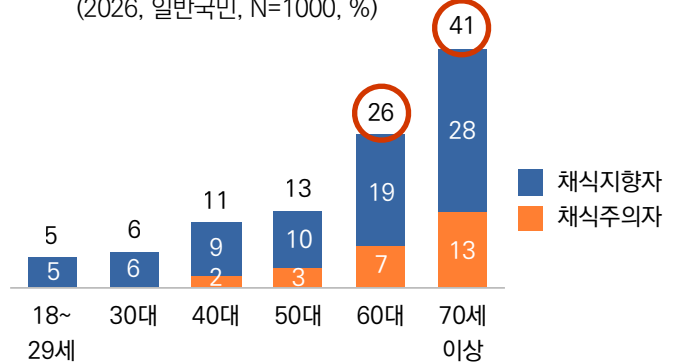
국민 5명 중 1명(18%)은 '채식인'!

- 우리나라 국민 중 채식을 실천하거나 지향하는 채식주의자는 얼마나 될까? 자신을 채식주의자(5%) 또는 채식 지향자(13%)라고 답한 채식주의 비율은 18%(5명 중 1명꼴)였다.
-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5%)나 30대(6%) 등 젊은 세대보다 60대(26%)와 70세 이상(41%) 고연령층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 건강과 식습관 관리에 민감한 고령층일수록 채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채식 실천/지향 여부 (2026, 일반국민, N=1000)



[그림] 연령별 채식주의자(채식주의자+채식지향자) 비율 (2026, 일반국민,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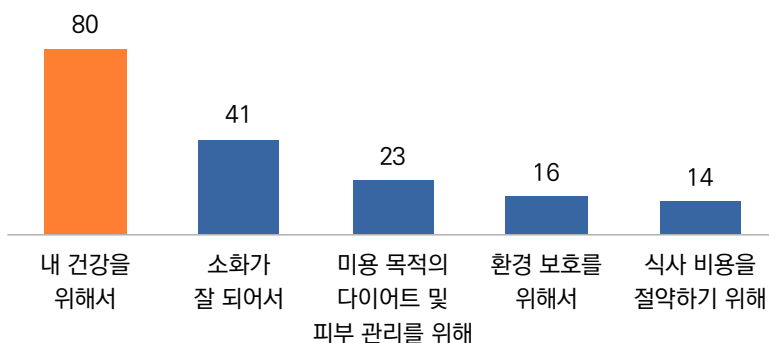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년 채식-비거니즘 인식조사] 채식주의자의 식습관, 채식-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 2026.10.0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7.24.~07.29.)

채식하는 이유 1위는 단연 '건강'(80%)!

-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실천하거나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내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 이어 '소화가 잘 되어서'(41%),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및 피부 관리를 위해'(23%) 순으로 나타나, 신념이나 환경적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몸 상태 개선과 건강 관리가 채식의 가장 주요한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채식을 하는 이유 (2026, 채식주의 혹은 채식 지향하는 자, N=176, 중복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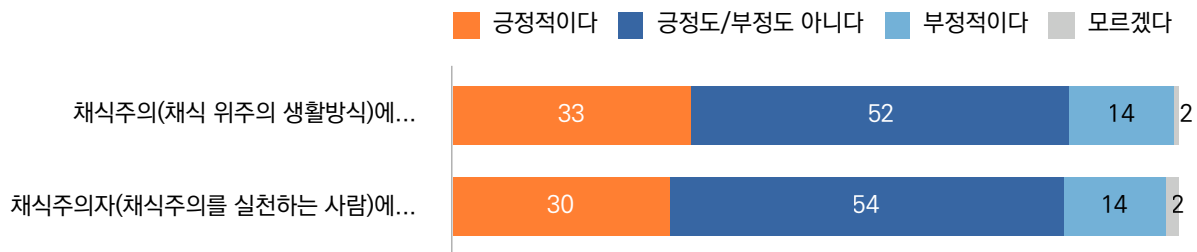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년 채식-비거니즘 인식조사] 채식주의자의 식습관, 채식-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 2026.10.0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7.24.~07.29.)

채식/채식주의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정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아!

- 채식주의(채식 위주의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33%로 ‘부정적이다’(14%)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절반 이상(52%)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 채식주의자(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가 30%로 ‘부정적이다’(14%)를 앞섰고, ‘보통(긍정도 부정도 아니다)’이 54%로 가장 많았다.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채식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수용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채식/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 (2026, 일반국민, N=1000,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년 채식·비거니즘 인식조사] 채식주의자의 식습관, 채식·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 2026.10.0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7.24.~07.29.)

노년의 성장이 전 교회를 이롭게 하는 목회

박민근 목사
(판교 이음교회 담임)

들어가며: 세대의 눈물과 함성이 함께 울리는 교회

에스라 3장의 두 소리: 통곡과 함성

에스라 3:12을 보면 묘한 장면이 나온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초가 놓이는 순간, 기쁨만 흐를 것 같은 자리에 의외로 함성과 대성통곡이 뒤섞인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통곡을 옛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현실과 비교하며 느낀 상실감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학개 2:3은 이 상실감이 실제였음을 증언한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세대차는 시간차가 아니라 해석의 틀 차이다

이 장면에는 정황 기록을 넘어서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세대 간의 차이는 단순한 시간적 격차가 아니라 각자가 겪은 시대와 정황을 기준으로 형성된 가치의 차이이며, 기쁨과 슬픔의 기준, 그리고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틀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나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의 권고에 반항하는 모습은 이러한 차이가 내포된 갈등이다. 교회는 이 두 세대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없고 모두를 한 공동체로 품어야 한다. 대성통곡하는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환호를 묵과할 수 없고, 환호를 장려하다가 노인들의 통곡을 놓쳐서도 안 된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는 믿음 가운데, 노인들은 눈물이 환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젊은 세대는 환희에 앞서 눈물 안에 내재된 역사를 알아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 목회는 이러한 다각적 시각으로 믿음 안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노년의 영적 갈망과 사역 의지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들은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욕구와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세대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도의 관심사는 건강(47%) 다음으로 영적 성장(24%)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 대비(10%)보다 높은 수치다. 생계 안전에 대한 추구 못지않게 적극적 신앙 주체로서의 갈망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역 연장 여부에 대한 지표는 더 직접적인 갈망을 보여 준다. 70세 이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세가 되어 건강이 허락할 경우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지’에 대해 ‘계속 사역하고 싶다’는 응답이 2022년 25%에서 2024년 34%로 증가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에 대해 71세 이상 교인의 53%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교회에서 일할 만큼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된다’,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에 각각 43%, 41%가 동의했다. 노년층의 이러한 적극성과 영적 건강함은 노인 목회에 긍정적인 소망을 품게 한다.

청년 이탈의 지표와 노년 목회의 방향

그런데 조금 더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회의 고령화만큼이나 눈에 띄는 현상이 젊은 층의 탈교회화이다. 교회를 이미 이탈했거나 이탈 의향이 있는 청년들이 말하는 이탈 요인에는 헌신 강요, 실망스러운 교회 직분자의 모습,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등이 강하게 드러난다.(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연결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90호 \(2026년 10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성장과 분배 인식, 사회 양극화 심각성 인식 등

사회 일반

[관계성 범죄 '돌만의 문제' 아니었다...64%는 가족 겨냥](#)

연합뉴스_2026.10.16.

[성인 절반 화장실서 비누로 손 안 씻는다... 14%는 물로도 안 씻어](#)

조선일보_2026.10.15.

["휴직한 김대리 올해 의대 갔대"](#)

조선일보_2026.10.15.

[해외는 푸꾸옥, 국내는 제주... 연말 인기 가족 여행지 보니](#)

조선비즈_2026.10.15.

[올해 주택연금 가입률 2% 문턱 넘을듯... 미국 절반 수준](#)

조선일보_2026.10.15.

["운동할 때만 만나요" "뒤풀이는 없어요"...2030 찾는 '오늘만 팀'](#)

뉴스1_2026.10.10.

[일상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관심과 체감 역대 최고... 친근감 과반이나 문제 대처 준비는 여전히 미흡](#)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10.13.

[\[기획\] 일하는 이유와 일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10.13.

[2026 '꼰대'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10.6.

아동 · 청소년 · 청년

[초등 수업시간 짧아 3시 하교?... "OECD 통계 해석에 문제"](#)

연합뉴스_2026.10.16.

[구직 청년 10명 중 7명 "취업 준비 비용 부담"...월평균 58만원](#)

연합뉴스_2026.10.19.

경제 · 기업

[40대가 빚에 휘청인다... "3명중 1명 소득 40% 이상 대출원리금 상황에 써"](#)

문화일보_2026.10.1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대기업서 별 달기 힘드네”…직원 121명당 1명꼴](#)

매일경제_2026.10.19.

[9월 취업자 11만3천명 ↑ …제조업 2년3개월만에 증가](#)

연합뉴스_2026.10.16.

[\[그래픽\] 취업자 증감 추이](#)

연합뉴스_2026.10.16.

[“재취업하러니 ‘물경력’”…40대, 10명 중 6명 고용 불안](#)

중앙일보_2026.10.16.

국제

[네이처 “中 과학 급부상…세계 판도 바꿀 것”](#)

조선일보_2026.10.15.

[한때 세계 2위였는데…경제대국 일본 ‘67년만의 쇼크’ 무슨 일](#)

중앙일보_2026.10.15.

[사망 67% 급증하자 도쿄 칼뿔다…“도심 한복판 화장장”](#)

중앙일보_2026.10.16.

건강

[머릿속 떠나지 않는 ‘음식 생각’… 더 취약한 사람 있다](#)

헬스조선_2026.10.15.

[“과자·냉동 식품 많이 먹는 중년, 무증상 뇌혈관 손상 위험”](#)

연합뉴스TV_2026.10.17.

기독교 • 종교

[실천적 기독교인 99% 예수 부활 믿지만… 미국인은 53%](#)

크리스찬타임스_2026.10.13.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 성경말씀\] 요한복음의 기적 읽던 순간 ‘묵인 허’ 풀리다](#)

국민일보_2026.10.17.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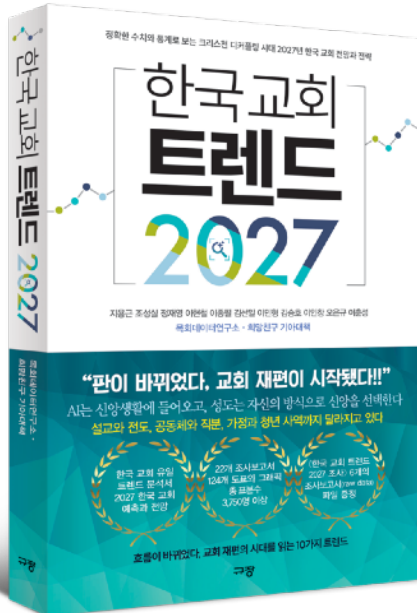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팀장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1. 프롬프트 크리스천
2. 노 타이틀 성도
3. DIY 신앙
4. 아날로그 영성
5. 리얼리즘 설교
6. 전도 리포메이션
7. 느슨한 공동체
8. 대 은퇴 시대
9. 두 번째 가정
10. 고밀도 청년 사역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이번에 새롭게 펴낸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은 저희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뜻을 모아 준비한 다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번 책은 담임목사, 일반 성도, 청년부 사역자 등 한국교회의 다채로운 현장을 담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되었고,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집필에 참여하여,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제(트렌드)를 엄선해 담았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라잇나우미디어 10월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10월 [교회 AX의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에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 1) 일정 : 2026년 10월 22일(목) 14:00~16:00
- 2) 강사 : 주경호 목사(PastoNexus 대표, 더바이블무브먼트 교육국장)
- 3)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4) 참가비 : 무료
- 5) 신청/문의 : 1533-7104(문자가능)

[신청 링크](#)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온라인 양성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10월 29일(목) 19:00~21:50
- 2)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 3) 강사 : 우명훈 소장(세바시연사 코치)
-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5) 참가비 : 3만 5천원 (구독 교회는 2만원)
- 6) 신청/문의 : 1533-7104(문자가능)

[신청 링크](#)

연구소 소식. 업무 협약(MOU) 체결

우리 연구소는 10월 16일(금요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오정호)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역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